

## 이탈리아 원사 수출량 20% 증가

이탈리아의 원사 산업은 최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원사 분야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얻고 있어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기업 정보 회사인 Textiles Intelligence 의 보고서를 인용하면, 이탈리아의 양모, 면 및 린넨사의 생산량은 2009 년도에 약 18% 감소하였지만, 2010 년도에는 약 18% 증가하였다. 이탈리아의 원사 제조업체는 지난 몇 년간 매출량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0 년도에 회복되기 시작하여 수출량이 20%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2012 년 춘하 시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002 년 ~ 2009 년도에 이탈리아의 원사 분야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기간 동안 가속화되어 매출량이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현재 이탈리아의 방직 산업은 위기 이전상태로 정상화 되었다. 물론, 판매량과 수출량은 여전히 2007 년도 수준 이하이고, 2010 년도 실적 증가량 중 일부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효과도 있지만, 매출량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세계 경제 침체의 효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텍스타일과 의류 생산량은 2009 년도에 두 자리 비율로 감소하였지만, 2010 년도에는 회복되어 수출 증가로 반영되었다.

2010 년도 10 월까지 텍스타일과 의류의 수출은 7.9%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의류보다는 텍스타일 분야에서 증가하였다. 텍스타일 수출은 13.3%, 섬유 수출은 20.2%, 의류 생산은 4% 증가하였다.

서유럽 텍스타일 산업의 회복은 중국으로부터 유럽 특히, 터키와 동유럽 이외에 이탈리아로 니트웨어 제조가 일부 재 이동한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중국의 니트웨어 제조는 가격 상승과 대량 주문에 따른 공급업체로부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2010 년도에 유럽의 텍스타일, 의류 생산 및 무역 거래의 회복은 2011 년과 2012 년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